

광산구, 시민 체감 적극행정 펼친다

소통·공감 5개 분야 12개 과제 추진 면책보호관·소극행정 신고센터 등

광주 광산구가 일하는 방식 변화,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직자의 복지부동 등 그동안 공직 내부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소통하는 행정혁신, 공감하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5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새롭고 이로운 행정혁신을 위한 '2023년 광산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해 공직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 반면 공직 내부의 소극행정을 예방한다는 방침의 두 가지가 핵심 줄기다 눈에 띈다.

특히 광산구는 실질적으로 적극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 관련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가점에 더해 성과상여금, 휴가, 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과 제도를 적극 해석·활용한 업무 수행에 따르는 책임, 처벌 등에 대한 부담과 불안,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 지원도 확대한다.

또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위한 감사청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변호사비 지원 등 법률적 지원도 제공한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도 신설 운영한다. 특히 광산구 감사관이 면책보호관이 돼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절차 요건부터 신청, 심사 준비 과정 등 전반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주민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업과 더불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서 접수한 건의 사항은 '적극행정 중점 과제'로 반영하고, 사업 성과 창출을 유도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대로 소극적인 민원 처리 등은 엄격하게 점검하고, 예방할 방침이다.

감사관을 중심으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신청 접수, 상담 등을 진행하고, 반기별로 민원 처리 지연, 악성·상습 소극행정 사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서와 협의해 재발 방지 및 개선에 나선다. 또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지난 '9월 지속성장회의'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전 직원 의견을 모으는 토의 등을 진행했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먼저 찾아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자체가 적극행정이다. 그런 점에서 민선 8기 광산구는 이미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혁신행정을 실천하고 구정의 핵심 동력으로 정착시키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시민 신뢰를 높여 지속 가능한 광산을 위한 상상과 혁신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황룡강·어등산 개발...시민의 꿈이 현실로

광산구, 'Y프로젝트'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선정 "환영"



췌신세계프라퍼티가 전국 최대 규모의 그랜드 스타필드 조성 계획을 밝힌 어등산 관광단지 전경.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주에서 발표한 'Y프로젝트' 청사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시민이 바라고 꿈꿔 온 광주 실현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산구는 1일 "18년간 표류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인 장복습지를 품은 황룡강을 명소화하는 시민의 가장 큰 두 가지 숙원이 비로소 본격화했다"며 "광주 경제,관광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광산구는 특히 "광주시의 Y프로젝트 발표로 민선 8기 공약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황룡강 생태길 30'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룡강 생태길 30 조성사업은 송산근린공원부터 황룡강,영산강 합류부 두물머리까지 12km(30리)를 걷기 좋고 찾고 싶은 명품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물빛문화 ▲달빛예술 ▲풀빛생태 등 세 가지 핵심 테마 구간으로 나눠 자연환경, 지역의 다양한

문화·역사 콘텐츠를 채울 예정이다.

광산구는 "영산강과 황룡강을 잇는 100리 길을 목표로 한 광주시 'Y프로젝트' 계획 중 야생초길, 송산섬 어린이 테마 정원, '폴로딩 수영장' 등 황룡강 에코랜드 사업, 서봉 수상레저 기반 조성 등은 황룡강 생태길 30의 불거리,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췌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광산구는 또 "지난 8월 사업 재개에 이어 비전과 역량을 갖춘 췌신세계프라퍼티의 사업 참여로 어등산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쇼핑과 체류형 휴양시설 등을 결합한 '국가대표 랜드 마크'라는 청사진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시민안전체험한마당

4일 쌍암근린공원 잔디광장

광주 광산구는 4일 쌍암근린공원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광산시민안전체험한마당을 개최한다.

안전점검의 날(11월 4일)을 맞아 시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화재 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 안전 4개 분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가정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재 대피 미로 체험, 심폐소생술, 태풍 대처, 119 이동 안전체험차량 등을 10개의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화재 진압 장비 전시, 미아 찾기 등록 서비스, 호신술 교육, 위생 안전 미술공연 등도 진행한다. 각 체험을 완료하면 인증 도장을 찍어준다. 5개 이상 도장을 모아 제시하면 신변보호용 호두라기를 지급한다.

이번 행사에는 광산경찰서, 광산소방서, 한국전력광산지사, 한국가스공사광주광역본부,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유관기관과 광산구안전모니터봉사단, 광산구자율방재단, 광산구자율방범연합회, 광산구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광산구는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상황 대응, 참여자 안전관리 등 행사장 안전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안전체험한마당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몸으로 안전을 배우는 안전점검의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구촌 세계문화 오감으로 느낀다

'광산구 세계시민문화한마당' 4일 황룡친수공원

광주 광산구는 "오는 4일 선운지구 황룡친수공원에서 '광산에서 만나는 세계 2023 광산구 세계시민문화한마당'이 열린다"고 밝혔다.

광산구 세계시민문화한마당은 지구촌 세계문화를 오감으로 느끼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교류, 공감하는 자리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25개국 선·이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며, 국립중앙아시아문화전당, 광주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는 아시아 설화를 원작으로 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이 조화를 이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작 음악극인 '스토리라인 아시아'로 문을 연다.

이어 광주문화재단 '프린지페스티벌'의 '우리동네프린지'가 시민을 맞이한다.

환경을 주제로 하는 고전 양식 설정극(클래식 퍼포먼스), 탈춤 등 전통 연희 공연과 재즈 길거리 춤(스트릿댄스)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화려하고 경이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광산의 문화다양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가별 공동체 행진(퍼레이드)'은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 사는 10개국 100여 명이 참여해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져 하나됨을 보여주는 멋진 광경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곳곳에 거주하는 세계시민이 참여하는

각국 전통 예술공연 경진대회도 열린다. 예선을 거쳐 최종 8팀이 본선에 올라 각국의 전통 민속 및 예술공연을 뽐내며 겨루는 자리다.

세계영화제도 진행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쉬면서 즐길 수 있도록 '텐트(천막)존'을 운영하며 돛자리도 대여한다.

이 밖에도 ▲세계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망콩기부열차' ▲세계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 오락실' ▲세계 각국의 의상을 입어 볼 수 있는 세계의상 체험 ▲다양한 나라별 음식 만들기 체험 ▲세계 물품을 판매하는 세계면세점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 ▲세계시민교육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재미와 흥미,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산구는 행사를 방문한 시민에게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여권을 지급한다. 각 체험관을 방문해 도장을 모으면 '인생세탁', '행운의 롤лет', '무알코올 라테달' 등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세계시민문화한마당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만나고 경험하는 광산만의 가장 특별한 축제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며 "광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영구임대 사회돌봄 수행기관 역량 강화 교육



광주 광산구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돌봄 수행기관 주민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돌봄 수행기관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총 6회에 걸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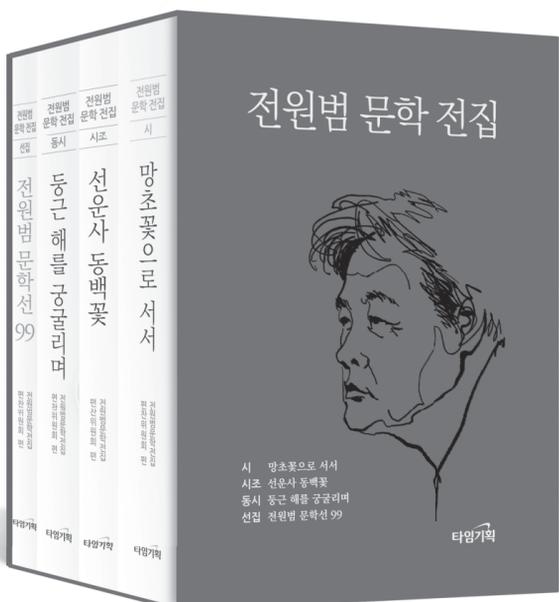
영구임대 사회돌봄은 이웃이 정기적으로 복지대장자를 방문해 온기와 마음을 담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사회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골목대장, 서로지기, 이웃지기, 돌봄활동가 등 주민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부

산의 만덕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광산형 통합돌봄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복지재단 사회적기업기구지원센터를 찾아 영구임대아파트 고립 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망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전집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정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 (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 (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 (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 (역몽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